

삼성, '일상 속 초연결' 현실화... "올해 AI TV시대 열 것"

Unbox&Discover 2024

내일 신형 QLED·OLED TV 출시
8K급 업스케일링 등 첨단기술 집약
용석우 사장 "목표는 'AI for all'"

삼성전자가 지난 1월 세계적인 IT·가전 전시회 'CES 2024'에서 제시한 '모두를 위한 인공지능(AI) 일상: 일상 속 똑똑한 초연결 경험'이 현실화했다. 첨단 기술력을 활용해 사용자 친화적으로 진화한 AI 가전이 일상속으로 들어오고 있다.

◆ 화질·연결성 등 밸류 승부

삼성전자가 13일 서울서초구서초동 서초사옥에서 프리미엄 TV 신제품 론칭 기념행사 'Unbox&Discover 2024'를 열고 AI TV 시대를 선언했다. 이날 공개된 2024년형 Neo QLED·삼성 OLED TV는 오는 15일 정식 출시한다.

용석우 삼성전자 영상디스플레이사업부 사장 "한국 시장은 프리미엄 TV와 초대형화 트렌드를 선도하는 글로벌 핵심 시장"이라며 "온디바이스 AI 연구개발(R&D)을 통해 최고 기술력을 모았고 올해 인공지능(AI) TV 시대를 열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삼성은 ▲512개의 뉴럴 네트워크를 가진 '3세대 AI 8K 프로세서' 탑재로



삼성전자 용석우 사장이 'Unbox & Discover 2024' 행사에서 AI TV 시대를 선언하며 2024년 TV 전략을 소개했다.

/삼성전자

개선된 성능 ▲초대형 TV 시장에서의 삼성 TV의 압도적인 성과와 초대형 TV 화질 구현 위한 차별화된 기술 ▲삼성 TV 플러스의 국내 이용자 행태 및 주요 업데이트 기능 ▲'스마트싱스(SmartThings)'를 중심으로 한 '기기 연결성 강화'를 설명했다.

용 사장은 "전사적 목표는 'AI for all'"이라며 "TV 자막이 나올 때 다른 언어로 바로 번역하는 기능의 경우 온디바이스로만 구현이 가능한 만큼 다양한 AI 기능을 소개할 예정"이라고 했다.

중국 TV 업체와의 격차를 줄일 전략을 묻는 질문에 대해선 "당사는 AI 기

능이 TV에 적용시키는 것을 계속해서 연구하고 있다"며 "(중국 업체와의) 격차를 벌릴 계획"이라고 했다. 이어 "회사 이름을 밝힐 수는 없지만 (중국) TV 연결성이 많이 떨어지는 게 아니냐는 지적을 들었다"며 "당사가 연결성을 활용해 시청 경험을 제공하는 밸류와 어느 정도 격차가 있다고 보고 있다"고 답했다.

이날 공개된 2024년형 Neo QLED 8K(QND900)는 '3세대 AI 8K 프로세서'를 탑재했다. 이를 통해 영상을 '8K AI 업스케일링 프로'로 저해상도 영상도 8K 급으로 업스케일링 한다. 특히

스포츠 영상에서 효과적인 'AI 모션 강화 프로'까지 지원한다. 사운드 기술에도 AI가 적용되어 더욱 진화했다. '액티브 보이스 프로' 기능은 각 콘텐츠마다 다른 음량 차이를 감지하고 목소리를 분리, 증폭한다.

◆ AI가전 시장 선점 주력

삼성전자는 지난 1월 온디바이스AI를 표방하는 갤럭시S24를 통해 생성형 AI를 접목한 스마트폰을 선보인 데 이어 AI 초연결 시대를 위한 AI 가전 신제품을 연이어 출시하고 있다. 스마트폰을 통해 확보하는 사용자 정보와 서비스 이상으로 가전을 통한 초개인화

서비스도 제공하겠다는 포부다.

이날 2024년형 AI TV가 공개 되기 이를 전인 지난 11일 일체형 세탁·건조기 '비스포크 AI 콤보' 신제품 출시 간담회를 열고 AI 가전 시장 선점 의지를 보였다.

이날 연사로 나선 이무형 삼성전자 DA사업부 부사장은 "AI를 위한 고성능 칩이 제품까지 확산하도록 기술 개발 중"이라며 "갤럭시 S24와 연결돼 세탁기에서 갤럭시의 번역기능까지도 사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또 "LLM(거대언어모델)도 개발 중으로 추후 업데이트해 탑재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삼성전자는 지난 CES2024에서 연기자간담회에서 생성형 AI를 적용한 가전을 통해 초개인화 한 삶을 제시했다. 한중희 삼성전자 대표이사 부회장은 "매일 사용하는 핵심 기능을 중심으로 생성형 AI를 적용하기 시작해 새로운 디바이스 경험으로 혁신할 계획"이라며 "스마트폰, TV/가전, 자동차까지 연결된 사용자 경험은 보다 정교하게 개인화된 서비스로 발전 중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AI가 접목되어 기기 간 연결 경험을 넘어 고객을 가장 잘 이해하는 차원이 다른 경험을 제공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서현 기자 seoh@metroseoul.co.kr



HD현대중공업, '차세대 이지스 구축함 2번함' 건조

HD현대중공업이 한국형 미사일방어체계(KAMD)의 핵심 해상전력인 '차세대 이지스 구축함(광개토-III Batch-II) 2번함' 건조를 본격화했다. HD현대중공업은 12일 울산 본사 특수선 야드에서 차세대 이지스 구축함 2번함의 기공식을 가졌다고 13일 밝혔다. (왼쪽부터) HD현대중공업 특수선사업지원담당 송운성 상무, 특수선생산담당 김상철 상무, 방위사업청 함정사업부 이수용 팀장, 국방기술품질원 이지혁 선임연구원, HD현대중공업 특수선의장 생산 담당 이광용 수석.

HD현대중공업이 한국형 미사일방어체계(KAMD)의 핵심 해상전력이 될 '차세대 이지스 구축함(광개토-III Batch-II) 2번함' 건조를 본격화했다. HD현대중공업은 12일 울산 본사 특수선 야드에서 차세대 이지스 구축함 2번함의 기공식을 가졌다고 13일 밝혔다. (왼쪽부터) HD현대중공업 특수선사업지원담당 송운성 상무, 특수선생산담당 김상철 상무, 방위사업청 함정사업부 이수용 팀장, 국방기술품질원 이지혁 선임연구원, HD현대중공업 특수선의장 생산 담당 이광용 수석.

/HD현대중공업

현대로템, '적층 프레스' 국산화... 시연회 개최

커팅 프레스도 함께 선보여
전기차 생산설비 시장 공략 박차

현대로템이 미래 전기차 생산 설비 시장 대응에 나선다.

현대로템은 지난 12일 충청남도 당진시에 위치한 현대로템 당진공장에서 고속 프레스인 '적층 프레스' 시연회를 개최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날 시연회에는 12개 고객사 및 관련사들이 참석해 적층 프레스 구동 과정 등을 살펴봤다.

현대로템이 자체 개발한 적층 프레스는 고속·고정밀 기계식 프레스에 해당되며 전기차에 적용되는 고효율 모터 코어를 생산하는 설비다. 전기차 모터는 일반 내연기관 자동차에서 엔진과 같이 전기차를 움직이게 하는 회전력을 생성한다. 이중 모터 코어는 전기차 모터의 동력을 담당하는 구성품으로 주행 거리 및 가속 성능을 결정하는 핵심 부품이다.



12일 현대로템 당진공장에서 진행된 '적층 프레스' 시연회 현장.

/현대로템

적층 프레스는 얇은 강판을 여러 층으로 겹쳐서 모터 코어를 생산하는 설비로 특히 강판이 얇을수록 모터의 효율이 향상되는 특징을 갖고 있다. 높은 정밀성을 유지하며 고속 생산하는 것이 현대로템이 개발한 설비의 핵심 기술이다.

현대로템은 이번 적층 프레스 국산화를 통해 해외 경쟁사 대비 빠른 납품이 가능하고 고객 서비스(AS, After Serv

ice) 대응 측면에서 높은 평가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현대로템은 이날 배터리 캔 고속 프레스인 커팅(Cupping) 프레스도 함께 선보였다. 배터리 캔 고속 프레스는 음료 등의 각종 캔 뿐만 아니라 전기차 원통형 2차전지 배터리 '캔'을 생산하는 설비다. 원통형 배터리는 대량생산이 용이하고 각형 배터리나 파우치형 배터리보다 원가부담이 낮아 최근 완성차 업계에서 수요가 크게 늘 것으로 예상되는 핵심 부품으로 현대로템의 커팅 프레스는 분당 최대 200회의 성형이 가능하다.

현대로템 관계자는 "기존에 보유한 기계식·유압식·서보 프레스 등 다양한 프레스 기술을 통해 이번 적층 프레스 설비 개발도 가능했다"며 "전기차 모터와 배터리 관련 부품 등 업계 수요에 최적화된 프레스 제품군을 확보해 시장 경쟁력을 갖출 것"이라고 말했다.

/양성운 기자 ysw@

LG, '트롬 오브제컬렉션 위시콤보' 출시

올인원 세탁건조기... 히트펌프 방식

LG전자가 일체형 세탁건조기 고급형 '시그니처'에 이어 일반형 '트롬 오브제컬렉션 위시콤보(사진)'를 13일부터 판매한다.

트롬 위시콤보는 세탁과 건조 용량이 각각 25kg, 15kg인 올인원 세탁건조기다. 시작 버튼만 한번 누르면 세탁 후 세탁물을 꺼내지 않고 건조까지 마친다.

LG전자는 제품 크기를 유지하면서 충분한 건조성을 확보하기 위해 세탁건조기 전용 인버터 히트펌프 건조모듈을 새롭게 자체 개발했다. 과거 방식인 히터를 전혀 쓰지 않고 100% 히트펌프 기술만으로 옷감손상은 줄이고 에너지 효율이 높은 건조를 구현했다.



LG전자의 인버터 히트펌프 방식 건조 기술은 냉매를 순환시켜 발생한 열을 활용해 빨래가 머금고 있는 수분을 빨아들이는 저온 제습 방식이어서 옷감보호에 유리하다. 모터 속도를 조절해 상황에 따라 필요한 만큼만 작동하는 인버터 기술까지 적용돼 에너지 효율이 높다.

트롬 위시콤보의 인공지능 모드로 3kg의 세탁물을 세탁부터 건조까지 99분에 마무리할 수 있다. LG 씽큐(LG ThinQ) 앱에서 원하는 시간에 건조가 끝나도록 예약을 설정할 수 있다.

/김서현 기자 seoh@

제주항공, 항공기 탑승 서류 디지털화

수속 소요시간 10분 가량 단축

제주항공이 항공기 탑승객들의 편의성 향상을 위해 항공기 탑승에 필요한 서류를 디지털화한다.

13일 제주항공에 따르면 이용 고객들은 ▲반려동물 운송서류 ▲어린이 안

심 케어 보호자 서약서 ▲특수 수하물 운송 서약서 ▲의사 소견서 등 기존 종이에 수기로 작성하던 10종의 탑승서류를 디지털 기기를 통해 입력하게 된다.

고객들이 탑승 수속 시 기본적인 고객 정보는 자동으로 반영되는 등 불필요한 절차를 생략해 수속에 걸리는 시

간을 10분가량 단축할 수 있어 빠르고 편한 여행이 가능해진다. 또 작성된 서류는 보안 서버에 저장되어 자동 보관 및 파기 처리되므로 고객들의 개인정보 보호 또한 한층 강화된다.

항공사는 고객들의 탑승 정보를 출·도착 지점에서 실시간으로 확인 가능해 신속한 업무 처리는 물론 고객별 맞춤 서비스 제공이 보다 수월해 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양성운 기자